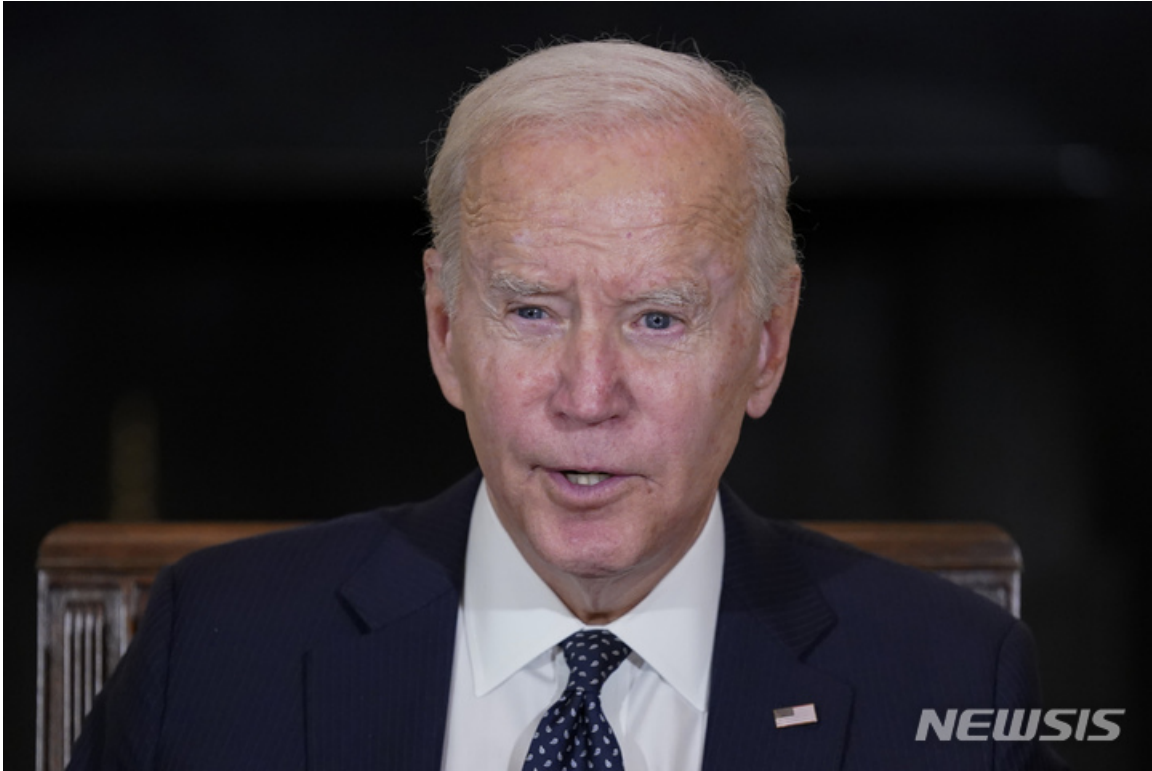


## 바이든, 美 PCE 6.2% 상승에도 "경제 계획 성과"

등록 2022.10.29 03:09:55 | 수정 2022.10.29 10:27:43

"인플레이션 3분기 둔화...내년부터 처방약·에너지 가격 감소"



[워싱턴=AP/뉴스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있다. 2022.10.27.

[워싱턴=뉴스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 경제 계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부 경제분석국(BEA)의 개인소비지출(PCE) 지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주 경제 보고서는 우리가 경제 계획에 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자평했다.

이날 발표된 9월 PCE는 전년 동월 대비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월과 비교하면 0.3% 올랐다. 변동성이 큰 식량·에너지 제외 근원 PCE 지수는 전년 대비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저지, 높은 소득 등을 거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며 인플레이션은 3분기에 둔화했다"라며 "휘발유 가격은 여름철 정점에서 1.2달러 이상 하락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할 일이 더 있다"라며 "내 계획은 내년부터 처방약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인 메디케어 보험료는 내리고 사회보장연금 매달 평균 140달러 인상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거대 기업이 새로운 세금을 내게 되리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면 의회 공화당의 의제는 매우 다르다"라며 "(공화당 의제는)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거대 기업의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적자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미국 가정의 에너지와 의료비, 처방약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발언, 오는 11월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